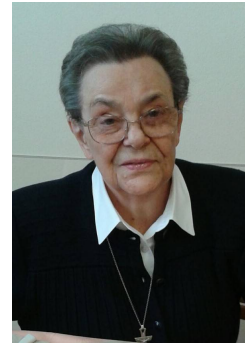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24항)



2019년 7월 12일 15시 30분,  
베로나 네그라르 병원에서 우리 자매인  
**안나 M.티모테아 보르키아 수녀님께서**  
향년 88세, 수도생활 62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전례에서 선포된 시편 말씀은 **주님을 믿으며 좋은 일을 하여라. 땅에서 살며 안전하게 풀을 뜯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안나 수녀님이 빠스또렐라 성소를 사셨던 선한목자께 대한 신앙과 포기의 정신을 축약하고 있습니다.

네 자매 중 첫째인 안나수녀님은 1930년 10월 2일 베로나 발포리첼라의 가르가냐고에서 태어나셨고 같은 해 10월 14일 자비의 성 마리아 본당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953년 8월 15일 알바노 라피알레 모원에서 입회하여 초기 양성기를 보내고 1956년 9월 2일에 수련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듬해 9월 3일 마리아 티모테아라는 이름을 받아 첫서원을 하였고 1962년 9월 3일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억하듯 마드레 티모테아 안나 수녀님은 여러 해 동안 공동체의 장상이었고 다음과 같은 본당에서 사목 직무를 행하셨습니다. 1957년에서 1960년까지 코르볼라(RO), 1960년에 알카모(TP), 1962년에 러시아(RO), 1967년에 다시 시칠리아 칼타지로네(CT)에 파견되어 1976년까지 머무르셨습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토디(PG)에 파견되어 특히 가정사목을 하셨습니다. 1984년에는 이듬해 치타두칼레(RI)에서 사목활동을 다시 하기 위하여 토르산 로렌조(RM)에서 안식년을 보내셨습니다. 1987년에서 2004년까지 안나 수녀님은 로마 에우르 모스타차노에 있던 예전 총원에서 환대 봉사를 행하셨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몇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두부손상을 입어 2005년에 총원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네그라르(VR)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어 어제까지도 재단과 응접 봉사를 큰 기쁨과 관대함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성바오로회 사제는 안나 수녀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수녀님은 **참되고 지혜롭고 평온하고 기쁨에 찬 빠스또렐라**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성소와 사명에 매

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녀님은 선한목자이신 그분의 예수님을 충만히 따르고, 재봉실의 특수한 임무에서 자매들에게 전적인 헌신으로 봉사하는 것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수녀님이 사도직을 하신 작은 방은 그분에게 마치 경당과 같았고 교회에서 성체이신 예수님 앞에 장시간 앉아있던 것과 같은 정신으로 그곳에 머무르시곤 하셨습니다. 안나 수녀님은 기도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동반하고, 창립자와 우리의 사목 카리스마를 살도록 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는데 있어 지칠 줄 모르셨습니다. 수녀님이 직무를 수행하셨고 보통은 공동체의 장상이었던 본당에서 사람들과 특히 공동체의 자매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셨기에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드레 티모테아를 그분의 모성적 특성으로 기억합니다.

총원의 환대와 재봉실에서의 봉사에서 수녀님의 현존은 자유롭고 치우침 없는 헌신으로 행하신 생활양식을 보여주었고 항상 그분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할 줄 아셨습니다. 많은 빠스또렐레들이 안나 수녀님이 큰 사랑과 돌봄으로 바느질 한 의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 가난, 기도, 특히 아침과 저녁기도에서의 성실함에 대해 우리에게 남긴 모범을 존경하며 간직합니다. 이탈리아, 외국에서 총원에 도착하는 누구든 뜨거운 환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행복을 사는 한 여인의 증언 또한 받곤 하였습니다.

2005년에 네그라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온 몇 달 뒤 제게 다음과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10월 7일 부터 내게는 다르고 숫자가 많은 새로운 공동체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게 있는 시간은 조금이고 ‘공동체의 재봉사’처럼 일로서 내가 하는 것은 최소한이에요. 제게 큰 친절을 베푸는 자매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게는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쓰고 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어요. 저는 1분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사물과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항상 저를 도와줍니다. 제게 허락하셨고 이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제게 마련해 주신 많은 선물에 대해 감사를 드려요”.

우리 자매 안나를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드리고 교회의 필요, 특히 선한 목자께서 우리 수도회에 불러주셨던 성소자들과 성소식별 여정에 있는 이들을 위한 계속되는 충실함을 위해 수녀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안나 수녀님, 당신의 기쁨과 모성의 빠스또렐라로서의 증언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총원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19년 7월 12일 로마에서